

七發島 燈臺의 沿革

編 輯 者

칠발도(七發島) 등대는 일본인 기술자에 의하여 최초로 등대가 세워지면서 관리 공무원이 정착하게 되었다.

이 등대는 서남해상의 최대 등대로서 해상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며, 연혁은 다음과 같다.

1905년 11월 석유 백열등 초점등(섬백광 매 15초 1섬광)

무신호 업무지시(매 25초 격 5초 취명)

1926년 6월 전기등으로 개량(120v-200w)

1943년 5월 시설물 완전 파괴(2차 대전시)

1945년 3월 깨스등 가점 무인 등대

1957년 7월 시설물 원상 복구. 전기등으로 개량

무신호 업무 원상 복구(매 55초 격 4초 취형)

1970년 12월 무선 전화 설치(SSB. 10w)

1976년 12월 무신호 개량(전기폰)

1977년 10월 도서 무선국(일반 전화 체신부 설치)

1979년 7월 무선 전화기로 개량(SSB. 30w)